

녹색 경제 건설

南道日報

2012년 11월 16일 (금)
12면 스포츠

주말 영암서 모터스포츠 무료로 즐기세요

17·18일 전남도지사배 자동차경주...카트체험 등 다채

전남도지사배 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F1 경주장과 관람객이 하나 되는 축제 형태로 기획돼 관람료를 비롯한 카트 체험, 전동차(RC 카) 체험, 버스 타고 F1 경주장 체험 주행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정상급 자동차와 바이크가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대회는 아니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텐트맨들의 자동차·바이크 묘기쇼가 펼쳐져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레저문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평소 국내 대회 시 일반 관중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은 사파리 체험(슈퍼카 주행 시 관람객이 버스에 탑승

해 경주장 체험) 인원을 대폭 늘려 운영키로 했다. 또 모든 선수들의 로망인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고급 슈퍼카 전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F1 모형 자동차 제작 대회인 F1 인스쿨을 운영하고 자동차를 소재로 한 사생대회와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 RC카 체험행사, 슈퍼카 전시회 등 다채로운 기획행사도 마련된다.

카트 주행도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다. 카트는 F1의 황제 '슈마허'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달리며 F1 선수의 꿈을 키운 미니 레이싱차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각종 무료 체험(카트, 사파리,

RC 카 등) 행사는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면 체험 가능하며 호텔 숙박권, 차량용품 교환권(블랙박스·썬팅 시공 쿠폰 등), 레저용품(인라인·자전거·트라이스키) 등 경품도 푸집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F1경주장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홍보 및 대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홍보위원과 오피셜 등 F1 경주장 전담 서포터즈 위촉식도 진행된다. (문의 =전남도 F1 지원담당관실 061-286-7921, F1경주장 사업단 061-288-4202~3)

최종선 전남도 F1대회지원담당관은 "앞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저·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복합레저문화 단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dnews.com

15.5 X 14.5 cm

무등일보

2012년 11월 16일 (금)
02면 종합

주말 영암서 모터스포츠 무료로 즐기세요

전남도, 17~18일 도지사배 자동차경주대회...카트 체험 등 다채

관람객 체험형 축제인 '전남도지사배 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F1 경주장과 관람객이 하나되는 축제 형태로 기획됐다.

카트 체험, 전동차(RC카) 체험, 버스 타고 F1 경주장 체험 주행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국내 최정상급 자동차와 바이크가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대회 뿐

아니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텐트맨들의 자동차·바이크 묘기쇼도 펼쳐진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F1 모형 자동차 제작 대회인 F1 인스쿨도 운영된다.

카트, 사파리, RC 카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참가 접수하면 된다.

최종선 F1대회지원담당관은 "F1 경주장에 지난 9월 국제카트경기장이 건설됐고 연말에는 오토캠핑장과 오프로드 경기장이 설치될 예정이다"며 "앞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저·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복합레저문화 단지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승한기자

20.7 X 7.2 cm

“주말 영암서 무료 모터스포츠 만끽”

17~18일 자동차경주대회

전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 무료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람객 체험형 축제인 '전남도지사배 자동차 경주대회'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영암 F1 경주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F1 경주장과 관람객이 하나되는 축제 형태로 기획돼 관람료를 비롯한 카트 체험, 전동차(RC카) 체험, 버스 타고 F1 경주장 체험 주행 등 다양한 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정상급 자동차와 바이크가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 대회뿐 아니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텐트맨들의 자동차·바이크 묘기쇼가 펼쳐져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일반 관중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은 사파리 체험 인원을 대폭 늘려 운영키로 했다. 또 모든



선수들의 로망인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고급 슈퍼카 전시회를 개최해 포토존도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F1 모형 자동차 제작 대회인 F1 인스쿨을 운영하고 자동차를 소재로 한 사생대회와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 RC카 체험행사, 슈퍼카 전시회 등 다채로운 기획행사도 개최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F1 지원 담당관실 061-286-7921, F1경주장 사업단 061-288-4202~3.

최현수 기자 chs2020@
9.8 X 12.2 cm

南道日報

2012년 11월 16일 (금)
12면 스포츠

F1대회 최고의 명장면은 ‘출발’

사진공모전서 백옥순씨 ‘스타트’ 대상



백옥순씨의 ‘스타트’〈사진〉가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15일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기성작가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F1대회 사진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카메라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디지털카메라 168명, 휴대폰카메라 68명

총 236명의 449작품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디지털카메라 분야 최고 수상작인 대상은 결선에서 출발 직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F1 경주차(머신)의 역동적 순위다툼을 고스란히 담아낸 백옥순씨의 ‘스타트’가 차지했다. 대상 상금은 150만원이다. 금상 역시 스타트 라인에서 역동적인 F1 경주차의 코너링을 순간적으로 잘 포착한 정금규씨의 ‘출발’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휴대폰카메라 분야 수상작에는 ‘결승전 제1코너’의 제목으로 출품한 송바울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영암 F1 경주장의 가장 매력적인 코너로 알려진 첫 번째 코너를 돌고 있는 머신들을 절묘하게 촬영했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디지털카메라 부문에서는 상장과 함께 총 440만원의 상금이 대상·금상을 비롯한 7명의 수상자에게 수여됐다. 휴대폰카메라 부문은 대상을 포함한 43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56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F1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속도와 사진의 결합이 좋은 소재가 된 것 같다”며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인 F1을 직접 관람하면서 경주장에서 보고 느낀 F1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양질의 사진이 대거 접수돼 F1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news.com

15.5 X 13.6 cm